

# 진안 · 용담댐 역사, 스마트하게 담는다

진안역사박물관, 문체부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지원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원 확보

진안군은 지난 25일 진안역사박물관이 최신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콘텐츠 구축을 통해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전시·교육·안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립박물관의 관람객 참여도 및 박물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진안군은 진안역사박물관에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월 조성을 추진한다.

아카이브 대상자료는 박물관 소장유물과 지역의 문화재를 비롯해 용담댐 수몰 지역과 관련된 역사문화자료 등으로, 이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다양한 연계자료를 박물관 내 설치될 대형 터치스크린 미디어월을 통해 내년 1월 본격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카이브 구축 대상인 용담댐 수몰 지역 역사문화자료로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3월 2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인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전시에 선보이고 있는 수몰 지역 생활자료와 기록물, 발굴조사 출토유물과 사진·그림 등이 포함돼 용담댐 수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안군은 25일 진안역사박물관이 최신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콘텐츠 구축을 통해 스마트 박물관으로 변화를 추진한다.(사진은 진안역사박물관 용담 새로이 열다 전시회 전경.)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기 위해 용담댐 완공 20주년인 지난해 기념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던 진안군과 국립전주박물관, 용담댐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과 스마트 전시콘텐츠 제공을 위한 이번 사업에도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기록·보관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이를 활용한 흥미로운 전시 체험 콘텐츠가 보강돼 박물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담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집성과 디지털 전시를 통해 수몰지역에 대한 향수와 수자원의 미래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 삼례책마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전북 유일 참여

책박물관 · 그림책미술관 · 호산방 연합 '생활 속 미술과 문화' 주제 전시

완주군의 대표관광지 삼례책마을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제27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

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서울리빙디자인



페어'는 올해로 27회를 맞았으며 생활 속 문화예술품을 선도하는 전시로 국내외의 정평을 얻고 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7일까지 개최됐으며, 디자인하우스와 코엑스, MBNI 공동 주최하고 '행복이 가득한 집'이 주관했다.

삼례책마을은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책박물관 · 그림책미술관 · 호산방이 연합해 '생활 속 미술과 문화'를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삼례책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비롯해 도록, 리플릿, 대표관광지 홍보물을 비치해 관람객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전시 참여를 기획한 박대현 관장은 "향후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전시 콘텐츠는 대중의 소유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관람과 소비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의 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며 "책박물관 · 그림책미술관 · 호산방은 이번 대규모 전시 참여를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국내외에 알릴 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러시아 출신 유튜버 '소련여자', "전쟁 절대 안돼"

"러시아 욕하는 건 내가 전문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도핑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유튜버 '소련여자'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채널 '소련여자' 운영자 크리스티나 안드레예브나 옴친니코바는 24일 '러시아 전쟁, 올림픽 도핑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전쟁 발발 이전에 제작된 관계로 전쟁보다 도핑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쟁 개시 이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속되는 해명 요구 및 침묵에 대한 비난으로 업로드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자막으로 시작했다.

이어 소련여자는 "러시아 욕하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최근 '지금 우리 학교는' 보느라 (해명이) 늦었다"며 "러시아 도핑 말리지 못해 죄송하다. 알았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밀렸을 텐데"라면서 "너 그러지 마"

라고 도핑한 선수를 향해 훈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도핑은 절대 안 된다"며 "할 거면 그냥 약쟁이 올림픽 따로 열어서 강화 인간끼리 대결하는 건 어떨까요"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련여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입장 표명을 하라니까 시작한 겁에 이것도 하겠다"며 "노 워(No War).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X자 표시를 해 보였다.

이어 댓글을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러시아를 옹호하느냐"라는 댓글에는 "옹호 안한다"라고 답했다. "푸틴 좀 막아달라", "푸틴 관리 안 하냐"는 댓글엔 "푸틴은 어떻게 관리하냐. 냉장고를 연다. 푸틴을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오늘부터 러시아 불매운동을 선언한다"면서 "이렇게 해명했으니 지속 좀 하다 오겠다"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소련여자는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먹방과 리뷰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보다 풍자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뉴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나도 아트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나도 아트큐레이터 프로그램 성료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은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나도 아트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완주향토 예술문화회관이 진행했다.

나도 아트큐레이터는 완주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큐레이터가 되어 전시회를 기획해 가상의 혼합현실 전시공간에서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보는 큐레이터 직업·진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거주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등 60명이 참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눈

은 만족도와 전문가들의 호평 속에 마쳤다.

또한 회관은 교육에 참여한 1기~3기 학생들이 만든 작품으로 특별 전시회도 준비했다. 특별 전시회는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시, 교육과정 아카이빙 영상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재정 관장은 "나도 아트큐레이터를 통해 완주군 청소년들이 예술가로서의 자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인 '나도 아트큐레이터' 프로그램이 향후에도 계속 이뤄져 보다 많은 완주군의 청소년들이 미술을 쉽게 접하고, 큐레이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